

# 일제강점기 제국주의 문화 청산한다

### 도교육청, 올바른 역사인식 제고로 민주 학교문화 조성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교육현장 용어 및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3.1운동 및 건국 100주년을 맞아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올바른 역사인식 고취와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안내자료를 발송하고 교육현장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 용어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가오->얼굴', '구라->거짓말', '기

스->흡집', '교봉->부하', '나사->민소매', '다데가->다진안녕', '뺨강->생떼', '뺨뺨->물방울 무늬', '만땅->가득채움', '오뎅->어묵' 등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중 일본어에서 온 어휘로 언어순화가 필요한 단어를 '일본어에서 온 우리말 사전(이한섭)'에 수록된 3,634 단어 중 16개를 선택해 우선적으로 안내했다.

교육활동과 관련해 군대의 접호를 본뜬 행사인 '해국조희'를 지양하고, '훈화'·'OO선생님 말씀' 등으로 순화

하며, 군대식 인사표현인 '차렷·경례'를 '안녕하세요' 같은 자연스러운 인사말로 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친일과 행적이 확인된 작사·작곡가의 교가 교체를 지원한다.

이 밖에도 일제강점기 당시 학교에 많이 식재된 '가이즈카향나무'를 다른 나무로 심기, 일본인 학교장의 사진 등을 학교 벽면이나 현관 등 공개적인 장소에 '역대 학교장 사진'으로 게시하지 않기, '운동장 조희대'를 학생 휴게 및 놀이공간 등 구성원과 협의해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기, 일제강점기 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만들어진 '3-3-7박수'를 월드컵 응원박

수 등 새로운 방법으로 모색하기 등을 권고했다.

도교육청은 학생회(학급)중심 토론회, 홍보 활동, 순화어 사용 캠페인, 학교 내 '일제 잔재 찾기 프로젝트' 수업, 지속적인 일제 잔재 청산 계획 교육, 역사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제 잔재 청산' 자료를 활용에 나갈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안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제국주의 문화 청산을 통해 올바른 역사인식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들의 공동 노력으로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참여위원 254명 위촉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지난 8일 센터 내 인권교육실에서 제7기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고 전했다.

도내 초·중·고 학생 50여 명으로 구성된 학생참여위원회는 학생 인권에 관한 학습과 토론, 학생인권 실현과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전북대 동물분자유전공학부 8일 '전북 곤충산업 발전 모임' 산학 네트워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 곤충산업으로 농생명 미래산업 선도

### 전북대, 발전 심포지엄 개최

전북대학교 동물분자유전공학부(단장 이학교)는 8일 '전북 곤충산업 발전 모임' 산학 네트워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학·지자체·산업체 및 전북 곤충사육 농가 등 국내 곤충산업 리더 그룹 20여 명이 참석 한 가운데 전북도와 함께 농생명 신소재인 곤충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산업 활성화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서는 세계 인구가 2050년까지 97억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 등의 영향과 더불어 식량 자원의 필요 역시 급증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미개척 영역인 곤충산업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새로운 인류 식량자원 확보, 식량 안보, 지구 온난화 예방 기여 등의 이유다.

곤충은 그 영양학적 가치가 기존의 가축에 비해 동등하거나 우월한 반면, 사료나 물의 소모량 및 온실가스 배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다는

장점을 가져 강력한 미래 대체단백질 후보로 꼽힌다. 뿐만 아니라 곤충산업은 순환경제라는 시대적 패러다임 구축에도 의미가 있다. 여러 산업에서 나오는 유기성 폐기물을 곤충사육에 이용할 수 있고, 곤충사육에서 나온 분변 등 부산물은 다시 농업용 비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곤충으로 사료용 단백질 생산해 축산, 양식업 등에 사용함을 고려하면, 이처럼 자원 생산성을 증대시키며 회수와 순환 체인을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곤충은 최고의 소재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곤충시장의 규모가 2020년 5,363억 원으로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이 때 사육기술에 있어서도 세계적으로 뛰어나고 알려져 있다.

전북 지역에서도 2017년 기준 약 160여 농가가 곤충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 등 국내 최대의 곤충관련 기술을 보유한 연구기관이 집적돼 있다.

동물분자유전공학부(단장 이학교)는 농촌진흥청 차세대바이오그린2사업에 통해 곤충분야 R&D 연구를 지속해 왔으며, 곤충에서 유래한

코프린 펜타이드가 동물 장염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를 규명했다.

농진청 곤충산업과 황재삼 연구관은 염증질환 치료를 위한 코프린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해 2012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18년 한 해 동안 1억 원의 기술이전과 5건의 특허 등록 등 성과를 냈다고 전했다.

이러한 연구성과를 곤충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국내 소비시장 활성화, 생산성 및 가격 경쟁력 향상 등의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곤충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능성 곤충 소재의 지적재산권 확보, 고품질 대량생산이 가능한 지역산업 인프라 구축, 위생적이고 균일한 품질의 곤충 생산, 품질에 대한 공신력 있는 보증과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 실행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산학 연대를 통한 기술 개발 촉진, 농축산업과 사료 및 파생산업의 순환형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곤충산업을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할 뿐 아니라 국가 R&D 사업과 지역 곤충산업의 연계 사업화를 통한 우수 사례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장은성 기자

## '함께 보고, 나누고, 놀아보자'

### 도교육청, 오늘 전주교대서 놀이공간마당 개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전주시(시장 김승수), 세이브더칠드런(사무총장 정태영)과 손잡고 '2019 놀이공간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부터 전주교대 황학당 광장에서 '함께 보고, 나누고, 놀아보자'를 주제로 청소년 놀이공간 조성 학교, 학교자율선택과제(놀이활동) 학교 중심으로 이동과 교원, 학부모, 자치단체 관계자,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놀이공간마당을 진행할 계획이다.

1부에서는 전북교육청과 전주시, 세이브더칠드런 업무담당자를 중심으로 각 기관별 놀이정책을 공유하고 진행 방향과 협업 방식을 논의한다.

2부에서는 전라북도교육감, 전주시장, 세이브더칠드런 사무총장과 아동 3명이 참여한 가운데 놀이에 대한 공감 토크를 진행하고, 학교 놀이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 밖에도 학교놀이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는 학교의 사진 및 내용 전시와 함께 놀이발표, 사회연대, 영세아 등 각 기관별 놀이활동 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이들에게 놀이는 성장의 원동력이다. 아이들은 놀면서 배우고 사회성을 키우며 세상을 체득한다"며 "놀이 정책에 대한 공유 및 논의를 통해 이동의 놀 권리 증진방안을 모색하고 함께 놀아보는 시간을 통해 놀이에 대한 공감을 증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2017년부터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학교에 놀이우호적인 공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학교놀이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아이들이 학교 안에 자신들만의 놀이공간을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가 놀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해왔다. /장은성 기자

## 전주대, 관내 저소득층에 사랑의 라면 전달

올해도 전주대가 전주시 독거노인,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사랑의 라면 265상자(1만194개)를 전달했다.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기부 받은 라면의 양은 총 1만194개로, 작년 기부된 5000여개에 비해 두 배나 많아진 양이다.

전주대 구성원 1명이 1개팩로 기부한 셈이다.

기부 기간에는 교내 각지에서 라면 기부 독려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되며, 이제는 기부 자체가 전주대의 자연스러운 문화로 정착했다.

전주대 홍보대사 학생들은 온·오프라인에서 라면 기부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동원참치 '참치~ 요리로 참

치~' CF를 패러디하여 '라면~ 기부면 라면~'이라는 기부 독려영상을 만들고, 이에 맞는 디자인으로 현수막과 홍보물을 제작하여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전주대 학생회와 교수, 직원, 재플리더까지 나서서 각 건물 로비 및 강의실에서 라면 기부를 독려했다.

이번에 모인 라면들은 덕진구청과 원산구청을 통해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전주대는 2016년 1학기 1000여 개 기부를 시작으로 매년 기부량이 꾸준히 늘어 현재까지 총 2만5000여개의 라면을 지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대 창업지원단, 투자유치 활동 결실... 2억원 투자 확보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권대규)은 11월 7일과 8일 이틀간 남원에서 도내 12개 창업기업과 투자전문회사인 (주)페이스메이커스, (주)S파트너스, AMOREPACIFIC, 포스코기술투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투자유치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전북대 창업지원단의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을 받은 반려동물 세제제 제조 창업기업 (주)나온이 (주)페이스메이커스와 2억 원의

투자확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이날 투자유치 발표회는 창업기업들에 대한 비전과 경영실적 등을 소개함으로써 기업의 역량강화는 물론 투자기업들의 투자 의향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와 함께 투자설명회(IR) 실무 및 발표 방법에 대한 특강을 진행해 기업의 IR 역량을 제고했으며, 성공적인 투자를 받기 위해 투자자와의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